

전기차 충전, 카 셰어, 車 매매... 스마트해진 마트 주차장

‘공유경제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 대형마트 3사, 전기차충전소 운영 이마트, 60곳에 ‘셰어링카 픽업존’ 홈플러스, 중고차 무인견적 서비스

대형마트 주차장이 단순히 차를 세우는 공간이 아닌,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의 총아인 전기차 충전소를 비롯해 셰어링카 픽업, 공유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소, 전국 확대

이마트는 전기차충전소 설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해당 분야 ‘퍼스트 무버’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하이패스 등 교통관리 시스템 업계 1위 기업인 ‘에스트라픽’과 손잡고 집합형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 ‘하이퍼 차저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 13개점을 설치했으며 올해 충전거점을 48개 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완속 충전소는 122개점 운영 중이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안에 전 점포에 충전시설을 도입할 예정



중고차 무인 견적 상담 서비스 실시. /홈플러스

이며, 현재 전국 123개 점포 중 117개점에서 충전기 174대를 운영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국 140개 점포 중 88개 점포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이다.

◆셰어링카로 2030세대에 편의제공 또한 주차장을 활용해 셰어링카 서비스도 활발히 확대하고 있다.

셰어링카는 1일 이상 차를 빌리는 렌트와 달리 한 대의 차량을 10분/30분/1시간 단위로 짧게 쪼개 여러 사람이 나

눠 쓰는 대표적 공유경제 서비스다.

이마트는 현재 셰어링카 업계 대표 주자인 ‘딜카’ ‘쏘카’와 협업해 자동차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거점을 60여 개 점포에서 운영하고 있다. 연내 20~30개소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셰어링카를 이용하는 주고객인 20~30대에게 상품 구매 외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중고차 매매, 주차장서 3분이면 OK 그런가하면, 홈플러스는 최근 인천



이마트 강릉점 전기차 충전소. /이마트

작전점, 인하점, 계산점에 ‘중고차 무인 견적 서비스’를 도입하며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대형마트 방문 고객이 대부분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고객 편의 증진 차원에서 기획했다.

해당 서비스는 3분이면 받아볼 수 있다. 홈플러스 주차장에 위치한 전용 부스에 차량을 정차한 후 키오스크에 기본 정보(촬영 동의, 사고이력 유무 조회 동의) 및 주행거리, 전화번호만 입력하

면 된다. 이후 자동차 전문가가 최저매입보장가를 책정하고 차주와 통화해 최종 판매 의사를 확인한다.

실사까지 마친 차량은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의 비교견적 서비스에 등록돼 중고차 딜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홈플러스는 이 서비스를 오는 7월 목동점, 강서점, 가양점에 설치하고 수도권 위주로 올해 20개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암 사망자 증가세... 남녀 모두 ‘폐암 1위’

보험개발원 10년새 7000여 명 늘어 男 간암 위암 靑장암 順 女 유방암 靑장암 간암 위암 順

암 사망자가 증가 추세다. 이 중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가 가장 많았고, 간, 위, 靑장, 靑장 유방 등 순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암으로 사망한 생명보험 가입자는 2008년 1만 8144명에서 2010년 1만 9560명, 2012년 2만 1179명, 2015년 2만 3213명, 2017년 2만 4940명 등으로 늘었다. 10년 새 7000여명 가량이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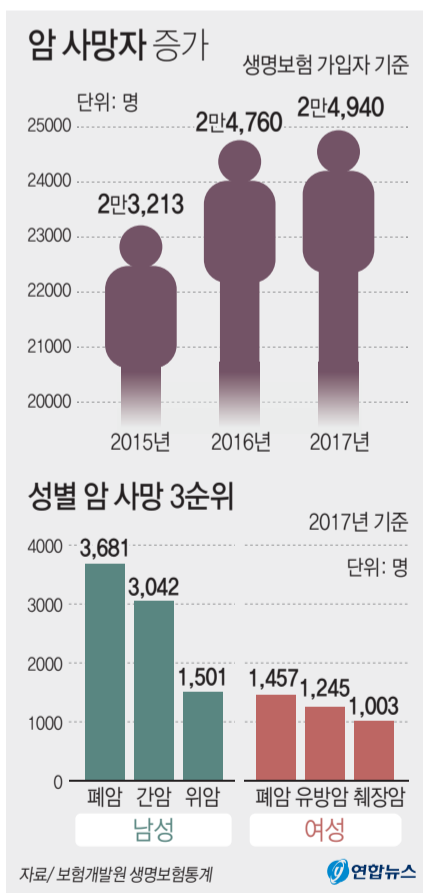
이들에게 발생한 암은 2017년 기준으로 폐암(5138명)이 가장 많았다. 간암(4027명), 위암(2385명), 靑장암(2054명), 靑장암(1314명), 유방암(1260명)이 뒤를 이었다.

남성 암 사망자(1만 4668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암은 폐암(3681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간암(3042명), 위암(1501명), 靑장암(1051명), 靑장암(671명), 직장암(454명), 식도암(424명) 순이다.

여성 암 사망자(1만 272명) 역시 폐암(1457명)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유방암(1254명)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靑장암(1003명), 간암(985명), 위암(884명), 靑장암(643명), 난소암(540명) 순이다.

남녀 모두 50~70대에 암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2015~2017년 누적 기준으로 남성은 60대, 여성은 50대가 가장 많았다.

60대 남성 암 사망자들은 폐암, 간암, 위암, 靑장암, 靑장암이 주요 사인



이었다. 50대 여성 암 사망자들은 유방암, 폐암, 간암, 위암, 靑장암 순이다.

암 사망자 수는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급증했다. 40대 남성은 간암, 위암, 폐암, 靑장암, 靑장암, 40대 여성은 유방암, 위암, 폐암, 난소암, 靑장암 순이다.

암을 포함한 10대 사망원인(2017년 기준)은 남성의 경우 1위 폐암, 2위 간암, 3위 폐렴, 4위 심장정지, 5위 자해(질식), 6위 위암, 7위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10대 사망원인은 1위 폐렴, 2위 폐암, 3위 심장정지, 4위 유방암, 5위 靑장암, 6위 간암, 7위 기타 패혈증이다. /손임지 기자 sonumji301@

소통나선 신현재, 임직원과 ‘허심탄회 토크’

(CJ제일제당 대표)

CJ제일제당 ‘CEO 라이브 토크’

임직원 120여 명에 비전·방향 공유 인생·직장 선배로서의 질의응답도 ‘격물치지 성의정심’ 소통·공감 강조

CJ제일제당 구성원들이 회사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 CEO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CEO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CJ제일제당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제일제당 본사에서 CEO와 임직원들이 직접 소통하는 행사인 ‘CEO 라이브 토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총 120여명의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운영됐다.

신현재 대표는 “주로 상의하달 방식으로 진행됐던 기존 간담회와는 달리 수평적 소통 방식을 통해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며 “더불어 각자 위치에서 어려움이나 원하는 것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두 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회사의 비전을 함께 공감하는 ‘비전의 장(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신현재 CJ제일제당 대표(왼쪽)가 지난 30일 진행된 ‘CEO 라이브 토크’에서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CJ제일제당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전략,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도전 정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의 모습 등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주제에 대한 CEO의 생각을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공감의 장(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인생·직장 선배로서의 조언, 취미활동, 내 인생의 책 등 평소 신현재 대표에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신현재 대표도 구성원들의 우려에 대한 인식, 현재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등 구성원들에게 궁금했던 점을 질문했다. 참가자들은 진솔하고 담백한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신현재 대표는 행사를 마무리하며 구성원들에게 ‘격물치지 성의정심(格物致知 誠意正心)’을 언급했다. ‘격물치지 성의정심’은 사물의 이치를 깊게 이해

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성심 성의껏 바른 마음으로 임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설명하며 구성원 모두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이해하고,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하는 마음을 갖자고 강조했다.

‘CEO 라이브 토크’에 참석한 구성원들은 ‘평소 어렵게만 생각했던 대표님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직장 선배이자 인생 선배인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앞으로의 사회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CEO 라이브 토크는 구성원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표님이 마련한 행사로, 하반기에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구성원들이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감과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